님의 노래。

金 素月

그립은 우리님의 맑은노래는
언제나 내가슴에 저저잇서요。

긴날을 門밧게서 서서 들어도
그립은 우리님의 부르든 노래는
해지고 저므도록 귀에 들려요。
밥들고 잠드도록 노래가락에

고히도 혼들리는 깁히 들어요。
내잠은 그만이나 홀로 누어도
孤寂한 잠자리에 깁히 들어요。
내잠은 포스근히

그러나 자다깨면 님의노래는
하나도 남김업시 일허버려요。
하나도 듯는대로 님의노래는
들으면 남김업시 닛고말아요。
하나도